

# 리우패럴림픽 남자 탁구 은메달 추가

## 여자 탁구 동메달 · 양궁 혼성 단체 은메달 등 선전

남자 장애인 탁구팀이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차수용(36), 주영대(43), 김경목(51)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3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탁구(장애등급 TT1-2) 프랑스와 단체전 결승전에서 1-2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따냈다.

1라운드 복식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했지만 2라운드 단식에서 김경목이 파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마지막 3라운드 단식에 나선 차수용이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여자 탁구에서도 동메달이 나왔다. 김옥(39), 강외정(50), 정영아(37)는 여자 탁구(장애등급 4-5) 스웨덴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2-1로 승리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정영아는 단식에 이어 대회 두 번째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1라운드 복식에 나선 강외정과 정영아는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두며 가볍하게 출발했지만 2라운드 단식에 나선 강외정이 패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다시 3라운드 단식에 출전한 정영아가 3-1 승리를 거두고 활약 웃었다.

양궁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구동섭(35)과 김옥금(56)은 양궁 W1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 위커 존·프리스(영국)에 129-139로 아쉽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출발부터 흔들렸다. 대표팀은 1세트에서 33-36으로 뒤진 뒤 2세트에서도 34-36으로 밀렸다.

3세트에서 추격에 나서며 4세트를 맞이했지만 집중력 부족으로 27-34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끝내 역전에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활채어 육상팀은 눈물을 흘렸다.

홍석민(41), 정동호(41), 유병훈(44), 김규대(32)의 활채어 육상 대표팀은 남자 1600m(장애등급 T53/54) 결승에서 중국(3분3초12), 태국(3분5초32)에 이어 3분8초77로 동메달을 손에 쥐었지만 실격 처리되며 동메달을 반납했다.

한국은 이날 3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지만 4위로 들어온 캐나다가 자신들의 자리가 태국과 뒤바뀌었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재경기를 치렀다. 재경기에 나선 한국은 스타트가 늦었고 이후 실격 처리되면서 패했던 동메달도 반납해야 했다.

'장애인 수영의 샛별' 조기성(21·부산장애인체육회)은 패럴림픽 한국 수영 역사상 첫 3관왕에 올랐다. 조기성은 남자 수영 자유형 50m(장애등급 S4)에서 39초30의 기록으로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기성은 100m(1분23초36), 200m(3분01초87)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이번 대회 스타로 떠올랐다. 한국 선수가 수영에서 3관왕을 달성 한 것은 조기성이 처음이다. 한국은 이날 금 1개, 은 2개, 동 1개를 추가하며 종합 19위(금 7개, 은 11개, 동 16개)에 올랐다.

/김민근기자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3관에서 열린 2016 리우패럴림픽 남자 탁구(장애등급 TT1-2) 단체전 결승전에서 김경목(51)과 차수용(36·오른쪽)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날 남자 탁구대표팀은 프랑스에 2-1로 패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급 S4)에서 39초30의 기록으로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기성은 100m(1분23초36), 200m(3분01초87)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이번 대회 스타로 떠올랐다. 한국 선수가 수영에서 3관왕을 달성 한 것은 조기성이 처음이다. 한국은 이날 금 1개, 은 2개, 동 1개를 추가하며 종합 19위(금 7개, 은 11개, 동 16개)에 올랐다.

/김민근기자

## 여자 피겨 김하늘, 주니어 그랑프리 개인 최고점

한국 여자 피겨 유망주 김하늘(14·평촌중)이 올 시즌 두 번째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김하늘은 18일(한국시간) 러시아 사란스크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98.78점을 획득, 지난 17일 쇼트프로그램(56.97점)과 합해 총 155.75점을 받아 6위에 올랐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김하늘은 이번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총점에서 모두 자신의 ISU 공인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쇼트프로그램에서 59.97점인 김하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가 흔들린 탓에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김하늘은 기술점수(TES) 51.85점, 예술점수(PCS) 47.93점에 감점 1점을 받았다. 김하늘은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 네이션 점프를 무난하게 소화해 0.58점의 수행점수(COE)를 얻었고, 트리플 루프도 깔끔하게 뛰었다.

이번 대회 여자 싱글에서는 러시아가 메달을 휩쓸었다. 폴리나 초르스카야가 쇼트프로그램 68.02점, 프리스케이팅 114.71점 등 총 182.73점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스타나슬라바 콘스탄티노비치가 175.20점으로 은메달을, 엘리제베타 누구미노비치가 173.13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김민근기자

##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 참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리는 '2016애리조나 인스트럭션리그'에 선수단 18명을 파견한다.

참가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참가 선수단은 총 18명으로 코칭스태프 4명(정회열, 김민호, 홍우태, 박재용), 투수 7명(손영민, 손동욱, 박기철, 김종훈, 박상욱, 김현준, 정동현), 포수 2명(권유식, 신범수), 내야수 3명(박효일, 김규성, 류승현), 외야수 2명(이경록, 오준혁)이다. 구단 프런트 5명도 선수단과 함께 하며 훈련을 지원한다.

KIA는 이번 인스트럭션리그에서 SK 와이번스와 연합팀을 이뤄 미국 10개팀과 19경기를 치르고 오는 10월 8일에는 중국 국가대표팀과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다.

KIA 관계자는 "이번 인스트럭션리그 참가는 신인 및 유망주들에게 선진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참가한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팀 전력의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팔색조 매력 발산

## 올스타 초청 갈라쇼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국내 팬들 앞에서 '팔색조' 매력을 마음껏 뽐냈다.

손연재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6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초청 갈라쇼'에서 리듬체조 연기와 유망 댄스 음악에 맞춘 안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올해로 6화제를 맞은 이번 대회는 손연재의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ASM이 개최했고 16~17일 이틀간 열렸다.

지난달 2016 리우올림픽에 출전해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 2개 대회 연속 결선 진출을 달성한 손연재는 갈라쇼에서 자신에게 성원을 보내준 국내 팬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손연재 외에도 리우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인 마르가리타 마문, 알렉산드라 솔다르비(이상 러시아), 멜리타나 스타니우타, 카치리나 할키나(이상

베라루스) 등 세계 리듬체조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손연재는 첫 무대부터 댄스실력을 과시, 좌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이를 짝수를 연상시키는 검은색 정장과 종질모에 붉은 셔츠를 입고 행렬의 맨 앞에서 마문 등 동료 선수들을 이끌었다.

절제된 동작으로 팝 가수 못지 않은 춤 실력을 뽐냈다.

본업인 리듬체조 연기가 빠지지 않았다. 리우올림픽에서 선보였던 리본 연기를 '리베르 탱고'에 맞춰 실수 없이 마쳤다.

1부 마지막에는 데미안 라이스의 '크라이시스'를 배경으로 춤사위를 선보였다. 서정적인 멜로디에 따른 유려한 몸짓으로 객석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파격적인 변신도 서슴치 않았다. 짙은 화장을 하고 무대에 오른 손연재는 남자 백댄서들과 함께 아이돌 그룹 EXO의 '으르렁'에 맞춰 도발적인 댄스를 선보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 밖에 이날 갈라쇼에서는 마문, 솔다르비, 스타니우타, 할키나의 연기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6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초청 갈라쇼'에서 손연재가 화려한 리본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보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 밖에 이날 갈라쇼에서는 마문, 솔다르비, 스타니우타, 할키나의 연기와 한국 리듬체조 유망주들의 무대를 지켜볼 수 있었다.

/김민근기자

## 맨시티 개막후 5연승 질주... EPL 선두

맨체스터 시티가 개막 후 5연승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두를 질주했다.

맨시티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EPL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지난 1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дер비 매치에서 2-1 승리를 거둔 맨시티는 본머스까지 가볍게 꺾고 승점 15가 됐다. 이번 시즌 5전 전승을 기록 중인 팀은 맨시티 뿐이다. 2위 에버턴(승점 13)과는 2점차다.

이날도 맨시티의 압도적인 공격력이 위력을 떨쳤다. 맨시티는 전반 15분 만에 케빈 데 브루잉의 프리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데 브루잉은 수비벽이 뛰어 오르는 사이 모두의 허를 찌르는 팽발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55분 클레지 이헤나초의 추가골로 전반을 2-0으로 마친 맨시티는 후반 들어 두 골을 보태 4골차 대승을 완성했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